



이대호, 부·명예 ‘투런 홈런’

日 소프트뱅크 새출발…2+1년 147억원 계약

프로 첫 우승 찬스…해결사 활약시 연봉 인상

소프트뱅크 호크스 유니폼을 입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2막을 여는 이대호(31)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기회를 잡았다.

이대호는 24일 소프트뱅크와 계약기간 2+1년, 총액 14억 5000만엔(약 147억원)을 받는 조건에 계약했다.

여기에 해마다 일정 성적을 내면 옵션으로 2억원 + α를 받아 최대 가뭇돈으로 6억원 + α를 챙기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총액으로만 20억원을 웃도는 초특급계약이다.

개인 성적도 좋고 팀 성적도 좋다면 연봉과 옵션을 합쳐 일본 프로야구 최고 수준인 해마다 6억~7억엔을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이다. 돈도 돈이지만 소프트뱅크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사실은 이대호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매력포인트다.

난카이 호크스, 다이에 호크스의 후신인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2011년까지 통산 6차례 일본시리즈를 제패했다. 통산 17차례 퍼시픽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세이부 라이온스와 더불어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리그 3위, 올해 4위에 그쳐 내리세를 타고 있으나 올 겨울 이대호를 필두로 제이슨 스탠드리지, 브라이언 울프, 데니스 사파테(이상 투수) 등 영입 대상으로 꼽은 4명을 모두 데려와 전력을 보강하고 내년 우승을 노려보게 됐다.

그 중심에 4번 타자 이대호가 있다. 2001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와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뛴 프로 13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롯데에서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오릭스에서 ‘이대호와 여덟 난쟁이’가 이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2년 연속 홈런 24방을 터뜨리고 91타점을 정확히 해결사로 분전했으나 팀 성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릭스는 지난해 리그 최하위인 6위, 올해에는 5위에 머물러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오릭스가 3년간 12억엔을 제시했으나 이대호는 그동안 활약상에 비해 미미한 금액이라며 미련 없이 결별을 택했고, 우승 가능성이 큰 소프트뱅크를 새 동지로 삼았다.

올 시즌 소프트뱅크는 일본 양대리그 12개 구단을 통틀어 가장 높은 팀 타율(0.274)과 팀 득점(660점)을 올렸으나 타선의 축이 되는 4번 타자의 부진으로 퍼시픽리그 4위에 그쳤다. 기본 전력이 탄탄한 만큼 이대호가 제 몫을 해낸다면 언제든지 리그 1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는 팀이다.

후쿠오카를 연고로 한 소프트뱅크는 올해 리그에서 가장 많은 240만 8993명의 홈 관중(경기당 평균 3만 3458명)을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대호가 소프트뱅크에서 호쾌한 장타를 날린다면 우승과 돈, 인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 팀추월, 네덜란드 추월할 것”

‘장거리 간판’ 이승훈, 빙속 종합선수권 4관왕

한국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대표주자 이승훈(25·대한항공)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팀추월 메달 획득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승훈은 지난 24일 서울 공릉동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끝난 제68회 전국 남녀 종합 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뒤 “1500m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내 기쁘지만 1만m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자평했다.

500m와 1500m, 5000m, 1만m를 치러 기록을 점수화해 순위를 가리는 이 대회에서 이승훈은 4개 종목 모두 1위로 우승했다. 특히 500m에서는 이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2009년 이후 최초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대회 결과를 두고 이승훈은 “500m에서 워낙 약했는데 올림픽을 대비해 해온 역도 훈련을 통해 초반 스피드를 끌어올린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이승훈은 2013~2014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5,000m 한국 신기록(6분 07초04)을 세우고 3년 만에 동메달을 따내는 등 기량을 뽐냈다.

그는 “1차 월드컵에서는 장비가 워낙 잘 맞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아직 상대를 압도할 정도는 아닌 만큼 올림픽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집중하겠다.”

개인 종목에서 ‘최강자’ 스펀 크라머 등 네덜란드 선수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김철민, 주형준과 함께 출전하는 팀추월에서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강국과 경쟁해야 한다.

남자 팀추월 대표팀은 1~2차 월드컵에서 동메달, 4차 월드컵에서는 2위에 올라 사상 첫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키웠다. “개인 성적보다 팀추월 성적이 더 낫다”며 너스레를 떨 이

승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제가 크라머를 이길 확률보다 팀추월에서 네덜란드를 꺾을 확률이 더 높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소치 올림픽에서 이번이 일어난다면 팀추월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은근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특히 세 명의 팀추월 선수가 모두 쇼트트랙 출신으로, 비슷한 습관을 갖고 똑같이 발을 맞추는 것이 이승훈이 꼽는 강점이다.

이승훈은 “우리가 개인 실력에서는 중·하위권이지만 호흡이 무척 잘 맞는다”면서 “모든 개인·팀 훈련을 함께하며 정상급 팀워크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시에 열린 제40회 전국 남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는 단거리 스타 모태범(24·대한항공)이 종합 점수 142.100점을 따내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모태범은 23일 500m와 1000m 첫 번째 레이스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24일 500m(35.54), 1000m(1분11초40)를 석권했다. /연합뉴스

KIA 기대주 박찬호

“내야 제보 잇겠습니다”

안정된 수비, 김선빈·안치홍 이을 재목 ‘눈길’

박찬호는 바리그에서도 알아졌던 야구선수다. 원조 박찬호가 떠난 그라운드엔 신성 박찬호가 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이번에는 KIA 박찬호, 투수가 아닌 내야수 박찬호다.

박찬호는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은 신인 선수다. 장충고 졸업을 앞둔 1995년생 옛날 선수지만 야구는 형들 못지 않게 아무렇게 잘한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도 선동열 감독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으며 내부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찬호는 지명전부터 화제의 인물이었다. 탄탄한 수비와 야구 센스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지명 회의에서는 명성과 달리 뒤늦게 이름이 불렸다. 대학진학을 예고한 상태라 자칫하면 지명 카드를 날릴 수도 있었던 상황. 그만큼 쉽게 박찬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눈치싸움 속에 KIA가 박찬호를 호명하며 승부수를 띄웠고 입단이 발표될 때까지 박찬호는 뜨거운 이름이 됐다.

지금이야 “프로 오기 잘했어요”라고 웃지만 박찬호와 부모님의 입장은 확고했다. ‘박찬호 잡기’에 나선 권운민 스카우트가 삼고초려 대학진학을 고집하던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며 어렵게 KIA 박찬호가 탄생했다.

박찬호는 “선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 지금은 프로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비만큼은 자신 있다. 공을 쫓는 움직임과 글러브에서 공을 빼내는 스피드는 타고났다. 포구와 송구능력도 인정받았다.

박찬호는 “딱히 톨모델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눈여겨 봤다. 장점을 집중해서 보고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 닮았다고 하기는 그렇고 내 스타일의 수비를 한다”고 웃었다.

노련한 수비와 자신감에 캠프에서는 “물건 들어왔다”는 소리가 나왔다. KIA의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안치홍, 두 고졸 내야수가 입단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다. 당찬 후배의 출몰에 내야에도 불이 붙었다. 휴식이었던 12월에 안치홍·김민우 등이 합류 챌린저스 필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캠프에서 박찬호를 지켜본 한 선배는 “선수끼리는 캐치볼을 하는 것만 봐도 대충 어떤 실력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공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야구에 끼가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의 벽이 높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단순한 실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박찬호는 가장 기대되는 투기 중 하나다.

박찬호는 “낮선 환경에서 선배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 힘든 점도 있지만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다. 처음 김선빈 선배랑 평소 받았을 때 기분이 이상하고 신기했다”며 “과외가 부족하다. 많이 먹는 편인데 살이 찌지 않아서 고민이다. 힘을 키워서 프로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 일단 내년 시즌 1군에서 보내는 게 내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KIA의 조각을 바꾼 2008년 김선빈, V10의 주역으로 프로야구 역사를 바꾼 2009년 안치홍, 그리고 2014년의 박찬호가 몰고 올 ‘내비효과’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라~ 눈길 말 경주

기수들이 지난 24일 눈으로 뒤덮인 러시아 중앙 모스크바 히포드롬 트랙에서 설키(Sulky) 경주를 벌이고 있다. 설키는 말 한필이 끄는 1인승 2륜 마차를 의미한다.

/연합뉴스